

- 주요 뉴스: 미국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 강조
 - 미국 2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1월 민간 신규고용은 작년 7월 이후 최소
 - 독일, EU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정준칙 완화 요구.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
 - 중국 전인대, 금년 5%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경기촉진 위해 재정지출도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일부 관세 유예, 무역 재협상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1.4%],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관세의 유화적 조정 가능성,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위 및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 지속과 유로화 강세 등으로 4개월래 최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5%,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2월 ISM 서비스 PMI 등이 영향
독일은 대규모 국채 발행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약화 결합되며 30bp 급등
- ※ 뉴욕 1M NDF 증가 1441.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4.1원, 0.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3/5일	3/4일	전일대비			3/5일	3/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42.6	5,778.2	+1.12%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24%	+3bp
	유럽	556.09	551.07	+0.91%		독일	2.79%	2.50%	+30bp
	중국	3,342.0	3,324.2	+0.53%		영국	4.68%	4.53%	+15bp
	일본	37,418	37,331	+0.23%	CDS 5y	한국	30bp	30bp	-0bp
	한국	2,558.1	2,528.9	+1.16%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104.31	105.74	-1.36%	위험 지표	EMBI+	-	369	-
	유로화	1.0789	1.0626	+1.53%		VIX	21.93	23.51	-6.72%
	엔화	148.88	149.79	+0.61%		WTI유	66.31	68.26	-2.86%
	위안화	7.2369	7.2639	+0.37%	원자재	구리	477.7	452.8	+5.50%
	원화	1,450.0	1,460.3	+0.71%		금	2,919.4	2,917.9	+0.0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 강조

- 백악관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자국 업체의 요청 때문이라고 첨언. 이번 설명은 관세 면제가 외교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통화했고,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해 나설 예정
- 백악관 대변인은 4/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된다고 발표하고, 추가적인 관세 면제 의견을 듣는 방안에 열려있다고 첨언. 이에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외의 부문은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첨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기존의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유도(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연방정부 재정적자 축소, 감세(소득세율 인하, 제조업체 세제 혜택 제공), 반도체법 폐기 등을 강조.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타결 및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소유도 기대
- 아울러 관세로 일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 그리고 캐나다·멕시코는 펜타닐 관련 추가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은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비판. 이에 더해 자국 내 선박 건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생산 촉진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1월 민간 신규고용은 작년 7월 이후 최소

- 2월 ISM 서비스 PMI는 53.5를 기록하여 전월(52.8) 대비 상승. 세부항목 가운데 고용지수는 53.9로 '21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고, 지급비용도 62.6으로 '23년 이후 최고 수준. 신규수주 역시 전월비 상승(51.3→52.2). 이번 결과는 양호한 서비스 경기 및 해당 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1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비 7.7만명 늘어 전월(18.6만명) 대비 큰 폭 줄어 6개월 만에 최소. 이는 정책 불확실성 및 소비지출 둔화 등에 기인하며, 시장에서는 고용둔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1월 제조업 신규수주는 전월비 1.7% 늘어 예상치(1.6%) 상회. 세부적으로는 민간항공기 부문이 호조

■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증가. 다만 관세 등 정책 관련 위험도 존재

- 12개 지역의 경제활동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6개 지역은 정체, 4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 2개 지역은 다소 위축되었다고 보고. 또한 소폭의 고용 증가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었다고 평가.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보고서에서 ‘관세’와 ‘불확실성’ 등의 단어 사용이 급증했고, 일부 지역은 소비지출 감소의 징후가 존재한다고 진단

■ 독일, EU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정준칙 완화 요구.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

- 독일은 방위비 예산 증액을 위해 EU에 재정준칙 완화에 나서도록 촉구. EU는 이번 주 해당 사안을 협의할 예정. 차기 유력 총리인 메르츠는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출 한도에서 국방비를 제외하겠다고 언급. 또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향후 10년 동안 교통, 주택, 에너지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언

■ 중국 전인대, 금년 5%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경기촉진 위해 재정지출도 확대

-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금년 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우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비율도 역대 최대인 GDP 대비 4%로 높ی겠다고 발표. 특히 연구개발(10.0%), 국방(7.2%)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특별채 발행도 계획. 인플레이션(연율) 목표는 `04년 이후 최저인 2% 내외로 설정
- 한편 2월 차이신 서비스 PMI는 51.4을 기록, 전월(51.0) 대비 상승. 이는 수출수주 호조 등에 기인하며, 세부항목 가운데 고용 및 사업전망 등도 양호한 모습. 투입비용은 일부 원자재 가격 약세에 `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하락

■ 일본은행 우치다 부총재, 경제 및 물가 전망이 현실화되면 금리인상 지속할 방침

- 우치다 부총재는 일본은행이 제시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면, 기존의 금리인상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 또한 현재의 금리인상 속도를 고려할 경우, 충분히 경제 여건을 확인하면서 완화적 정책 기초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 한편, 우에다 총재는 지정학적 긴장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6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발언, 미국 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및 1월 도매재고
- ECB 통화정책회의, 유로존 1월 소매판매, 호주 1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금융시장 곳곳에서 신호가 감지 - Reuters

(Whisper it and it's back: Recession risk creeps onto markets' radar)

-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 무역긴장 고조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금융시장 관심사로 부상. 이를 반영하듯 유가와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 미국과 일본 주가도 큰 폭 하락. 애틀랜타 연은은 무역전쟁 관련 우려가 인플레이션에서 성장 위험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고, 1/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2.3%→-2.8%)
- 또한 일부에서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성장률의 0.7~1.1%p 축소를 예상하고(Morgan Stanley),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Forvis Mazars). 금년 연준의 금리인하 횟수 전망 증가(2회→3회), 일부 투자은행의 증시 강세 의견 철회(Goldman Sachs) 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우려는 상당한 수준

■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관세보다 경기둔화 우려에 기인 - Financial Times

(It's a growth scare first and a tariff scare second)

- 주가와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는 관세보다 경기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 특히 KBW은행지수 하락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은행은 경기와 연동되어 성장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 달러화 강세 요인인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화의 약세 발생 역시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반영
- 한편 정부효율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은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대규모 해고로 고용이 위축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 계획,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800 billion EU defense bill risks bond tantrum)

- 대서양 동맹 약화로 EU는 최대 8천억 유로의 국방비 조달을 계획. 이에 독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로존 내의 차입 비용도 상승할 전망. 국채의 무위험 자산 지위가 약화되면 투자자들이 회사채, 주식, 해외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미 금년 역대 채권 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요 약화 조짐이 발생
- 유럽이 효과적으로 군수물자의 해외조달을 줄이고 자체 방위 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기대도 가능. 다만 국방비 증가와 경제 성장, 부채 부담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

■ **분산투자의 중요성, 금융시장 혼란의 시기에 더욱 부각 - WSJ**

(In a year of turmoil, diversification is paying off for investors)

- 작년까지 활황이었던 미국 증시는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 반면 유로 Stoxx600지수는 금년 12% 이상 상승. 미국과 유럽 간 무역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럽 자산으로의 분산투자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 이에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분산투자의 가치가 재조명
- 아울러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타결 기대에 따른 에너지가격 하락, 독일 총선 이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규제 완화 및 성장 촉진 노력 등으로 유럽 주가는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다변화 노력이 요구

■ **미국 경기둔화 우려, 관세뿐 아니라 연방인력 감축이민 단속 등으로 고조 - 블룸버그**

(It's Not Just Tariffs: US Growth Risks Are Piling Up Under Trump)

■ **연준의 통화정책 시행,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 어려움에 직면 - WSJ**

(The Two-Headed Monster Stalking the Economy Has a Name: Stagflation)

■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무역전쟁 심화로 보다 강력한 부양책 요구 - 블룸버그**

(Xi's Growth Goal Will Need Big Stimulus If Trade War Escalates)

■ **독일의 투자 확대, 역내 리더십 강화 등을 유도할 전망 - Financial Times**

(The reawakening of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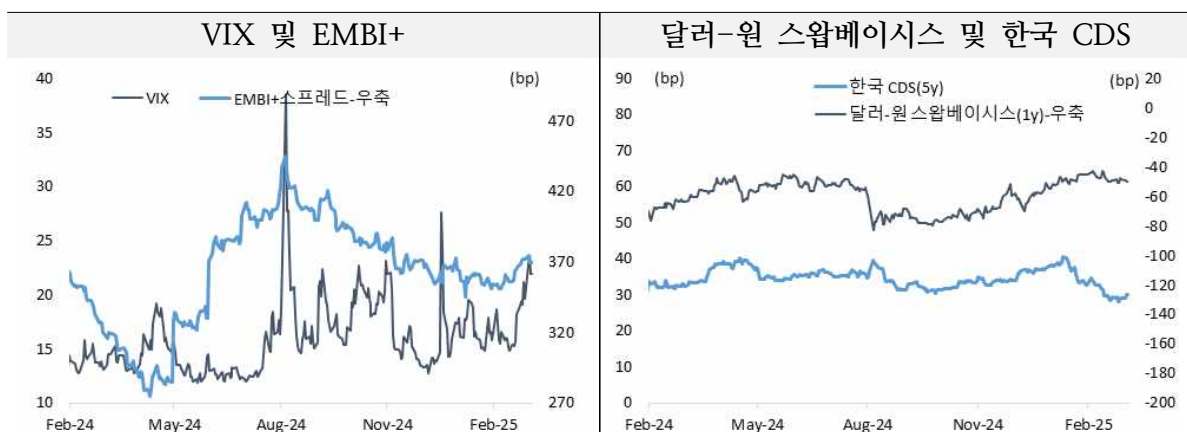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